비교문화연구 제 8 집 2 호, (2002) pp.37-78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주요개념〉 이주민, 신이민, 타자, 정체성, 시민권

타자로서의 이주민: 홍콩의 중국본토 이주민(新移民)[1)]

장정아*

"빈곤한 이주민은 잠재적 범죄자로 비난받고, 성공한 이주민은 교활하다고 비난받는다"(Davin 1999: 154)

1. 들어가며: '홍콩인' 안의 타자 '신이민'

역사적으로 중국본토('內地')[2)]로부터의 이주민으로 형성되어온 홍콩에는 '이주민'과 '원주민'의 구분 따위는 본래 존재하지 않았다. 內地와 홍콩 사이의 이동은 '국내 이주'로 간주되어 어떠한 형태의 제약도 받지 않았고, 이는 영국의 점령 후에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한신대학교 학술원

1) 이 논문을 읽고 많은 도움이 되는 심사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드린다.

2) 여기서 '內地'는 중국의 연해(沿海)지역과 대비되는 의미(inland)가 아니라 홍콩과 대비되는 본토(mainland)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홍콩에서의 사용방식을 따른 것이다. 홍콩에서 이 '內地'는 특별한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중립적 기술(記述)용어인 반면, 일상에서 훨씬 많이 쓰이는 '大陸'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

였다. 1949년 內地에서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처음으로 '홍콩인' 신분증이 생기고 '불법체류자'라는 범주가 탄생하였지만, 홍콩인이라는 신분의 경계는 아직 그다지 분명하지 않았다.

점차로 '홍콩인'(香港人) 범주가 명확해지고 이 '홍콩인'에 속하면서도 시민권에서 배제되는 '신이민'(新移民) 범주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는 제도와 정체성 두 측면 각각의 흐름이 맞물리면서 생겨난 결과였다. 즉 제도적으로는 반환을 앞두고 홍콩거주권과 주민 규정의 필요성에 따라 1987년 '홍콩 영구거민(永久居民)' 개념이 도입되면서, 모든 사회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진정한 홍콩인은 홍콩에서 만 7년 이상 거주한 '홍콩영구거민'에 국한되고, 홍콩에 거주한 지 만 7년이 안된 사람들은 '신이민'으로 범주화되었다. 다른 한편 정체성 측면에서는, 1967년 반영(反英) 폭동을 계기로 홍위병과 좌파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된 홍콩인들이 '조국'과 단절하면서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후 식민정부의 유화정책과 홍콩출생자 증가,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홍콩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內地 이주민들(신이민)은 탐욕스럽고 홍콩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며 대중문화에서 조롱과 희화화의 주된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3)]

그리하여 이 '신이민'이라는 이름은, 홍콩에 온 지 7년이 안된 이주민이라는 뜻의 기술적(記述的) 용어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실제 용법에서는 이미 단어 자체가 강한 경멸감과 반감을 내포한다. 그리고 이 반감은 단지 신이민들만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內地人에 대한 홍콩인의 뿌리깊은 감정이 신이민(홍콩 내의 內地人)에게 투사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內地에 사는 중국인들 뿐 아니라 이미 홍콩으로

---

3) '홍콩인'이라는 신분이 內地人에 대한 통제 속에서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 과정이 식민역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장정아(2003)의 3장을 볼 것.

이주해 와서 홍콩인의 신분을 얻은 內地 이주민에 대해서도 홍콩인들이 '신이민'으로 범주화하면서 끊임없이 자신과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타자화를 통해 자아 만들기'를 넘어서 '자아 안에서 타자 만들어내기'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아와 타자가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타자'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단순히 우리와 너무나 '다른'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다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탐구에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신이민에 대한 홍콩인들의 태도는 신참자에 대한 배척이라는 점에서 어느 사회에나 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식민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홍콩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의미를 획득한다. 홍콩에서 內地人이나 신이민이 놓인 상황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 점에서, 다른 사회에서의 소수집단이나 이주민에 대한 연구와 연결될 수 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비교되기 어렵다. 즉 이것은 단순한 차별이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타'가 없이는 자신이 존재할 수 없는 정체성의 정치와 관련되는 것이다. 절박한 것은, 차별받는 內地人이나 신이민 뿐 아니라 홍콩인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는 신이민이 홍콩인으로부터 어떻게 구분되며 그 구분이 또한 얼마나 취약한지를 먼저 논하고, 신이민에게 부과되는 담론이 현실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또는 어긋나는지를 살펴본 후, 신이민이 어떻게 '홍콩인'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이민이 시민권으로부터 배제되고 타자로 범주화되면서도 동시에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끊임없이 길들여지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연구자는 內地자녀의 거류권 분쟁에 관한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2001년 8월까지 內地와 홍콩에서 현지조사를 하였다. 비록 조사의 초점이 신이민은 아니었으나, 조사기간동안 홍콩의 인권단체들에 관여하면서 신이민 관련 모임에 계속 나가서 그들을 접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또한 본인의 논문주제인 內地자녀 문제는 신이민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內地자녀들이 만일 홍콩에 와서 거주하게 된다면 바로 신이민이 되는 것이고, 內地자녀들이 홍콩에서 받는 냉대나 차별은 신이민에 대한 인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자의 조사경험과 자료들에 기반한 것이다.

2. 이주민과 시민권의 문제

이주에 대한 논의에서는 초기의 근대화론이나 이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역사-구조주의적 접근 모두 기본적으로, 단일한 방향으로의 장소의 변화로서 이주를 상정해왔다(Kearney 1986; Pries 1999; Brettell 2000 참조). 즉 출신지와 도착지가 가정되고,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으로서 이주가 논의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이러한 가설들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주를 새로운 사회적 현실로 바라보게 되고 이주민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게 되었다. 즉 자신의 땅을 떠나 다른 사회 · 문화에로 고통스럽게 통합되려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고향사회와 현재의 거주사회 모두에 걸친 연망이나 생활유형을 지닌 이들로서 이주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경험과 이를 통한 새로운 장(場)의 형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이주민들이 여러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면서 이것들을 서로 다른 맥락에 따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러한 실천이 그들의 출신사회와 현재 거주사회에 대해 어떠한 함의와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등장하였다(Schiller et al. 1992, 1993; Appadurai 1993; Rouse 1995).

이러한 논의들은 특유한 문화적 집단으로서의 공동체와 민족이라는 기존 인류학의 가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로 나아가게 된다. 새로운 유형의 탈중심화된 주체들은 더이상 어느 하나의 공동체

에 속하는 문화를 체현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 "A정체성-그리고-B정체성-그리고 …"라는 논리에 의해 규정된다(Kearney 1995: 531). Bhabha(1990) 또한 이주민들의 실천과 정체성이 기존의 국민국가 경계들을 어떻게 흐려놓는지를 논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이산(민)' (diaspora)에 대한 주목으로 이어지는 바, Clifford(1994)와 Gilroy(1991)는 규율적 국가와 자본주의적 팽창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것으로서 이산적 실천을 바라보는 반면, Ong and Nonini(1997)는 이러한 입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그 반대의 측면, 즉 초(超)국가주의가 오히려 국가 규율을 강화하는 문화적 정치와 연관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한다.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는 이주가 기존의 경계를 침식하고 흐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경계를 더욱 강화하는 역설적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점에서 Guarzino(1998)는 이주민을 자유부동하고 탈영토화된 사람들로 묘사하거나 이주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초국가적 실천이라고 보려는 시도들에 대해 비판한다.

특히 우리는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차별과 배제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의 "레토릭은 '포함' 이지만 실제의 경향은 '배제' 이다" (Sussman and Settles 1993: 220). 이 역설은 '노동력' 은 필요하되 그 인간은 필요없다는 모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이주민의 문제는 시민권 문제와 연결된다. 최근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시민권 개념을 한 국민국가에서의 단수적(單數的)이고 개인적인 성원권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이상 적절치 않다는 것, 이제 많은 이들이 하나 이상의 사회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Castles(1998)에 따르면, 원래 시민권 개념 자체에 근본적 애매함이 존재하였지만 국민국가라는 정치적 맥락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보이는 한 그 애매함은 문제되지 않았다. 현재의 시민권의 위기는 국민

국가 모델이 받고 있는 도전과 연관된다. 시민권은 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 모두에 있어서 핵심적인 제도이면서도 여기에는 언제나 여러 가지 애매함이 존재해 왔다. 무엇보다도 시민권 개념은 본래 포함 뿐 아니라 배제도 함의하는 바, 현재에는 그러한 배제가 이주민에게 주로 적용된다. 유럽에서는 숱한 외국인 주민들이 그 거주지에서 태어났으면서도 혈통에 의한 국적획득 원칙에 따라 '시민'에서 배제된다. 북미 · 호주 등 귀화가 쉬운 나라에서도 상당한 수의 '非시민인 주민'(resident non-citizen)이 있다. 또는 선거권은 있을지 몰라도 사회 · 경제 · 문화적 배제가 그들의 진정한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애매함은 더 근본적인 모순, 즉 시민권과 국적 사이의,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부터 추상화된 개인으로서의 '시민'과, 공통의 특정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국민' 사이의 모순의 표현이다. 시민권은 보편주의적이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것인데 이는 국민국가의 맥락 속에서만 존재하며, 국민국가는 바로 문화적 특수성의 맥락에 기반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긴장은 소수집단들을 국민문화 속에 통합시키는 방법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제 국민국가에 대한 도전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면서 시민권 개념도 변화에 직면해 있고 '초국가적 시민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경계해야 할 점은 이것이,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여전히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강하게 존재하고 EU 시민권도 특정 국민국가에 속한 이들만이 얻을 수 있으며 외부인, 특히 남동부 유럽인들에게는 배타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시민권이 각 사회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 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각 사회 내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주체 만들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시민권 논의를 연결지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시민권에 대

한 개념이나 제도의 분석 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체성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 특히 이주민들이 특정 국민국가의 주체로 만들어지는 일상적 과정은 별로 연구되지 않았다"(Ong 1996: 737). Ong은 특정 영토와 인구집단의 소속기준을 둘러싸고 국가 헤게모니적 형태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합과 협상을 논하기 위해 '문화적 시민권'(cultural citizen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개인들이 국가의 '주체'가 되는 문화적 과정으로서, 만들어지는 동시에 스스로 만드는(being-made and self-making) 이중적 과정이다. 누가 '바람직한 시민'인지 하는 기준이 한 사회 안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이주민들에 대해 가해지는지, 그리고 이주민들 자신이 이에 대해 어떤 실천을 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통제는 한 사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끊임없이 형성되고 상상되는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국민 정체성 논의와 연관된다. Moore(2000: 168-75)는 이민정책이 국민 정체성 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독일에서 러시아인 이민자들에 대해 행하는 '언어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국민 정체성의 매일의 '상상'의 장소라고 주장한다. 러시아-독일인들은 독일언어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 언어테스트 장소는 국민 정체성이 구성되는 장소이다. 그러나 공식적 진술들은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들은 시험자·통역자·신청자의 문화적 정체성이 각각 이미 고정되어 있으며, 언어테스트는 그저 그것에 대한 '객관적' 평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지학자는 '언어테스트'와 같은 실천이 독일 시민권의 법적 정식화 또는 '독일' 정체성의 상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의 상상에 이 실천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기여하는지까지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택할 때 우리는, 이주민들의 정체성을 이미 고정된 것으로 본질화시키고는 여러 가지 실천들이 그 정체성들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들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것이다.

3. 신이민은 홍콩인인가?

신이민은 홍콩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홍콩인이 아니다.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명제는 신이민이 홍콩에서 놓여있는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신이민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 '모순'을 이해해 보기로 하자.

1) 신이민은 홍콩인이다: 공식적 신분

홍콩에 거주하는 화인(華人)들에게는 內地에서와 달리 민족범주인 '族' 분류가 거의 의미가 없다. 홍콩에서 사람들의 신분범주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홍콩인' 여부이며, 따라서 內地에서의 민족구분들이 홍콩에서는 '홍콩인'이라는 강력한 범주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 홍콩인 안에서 다시 구분되는 유일한 범주는 '신이민'이다.

이 '신이민'은 용어와 범주 자체가 특수하다. 말뜻은 그저 어느 사회에나 있기 마련인 신참자(newcomers)를 가리키지만, 홍콩에서 이 용어는 오직 內地이주민들에 대해서만 쓰일 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민'이라는 용어나 범주로 표현되거나 구분되는 일이 없으며 '신이민'이라는 용어는 더더욱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이민은 최근에 '內地에서' 홍콩에 온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일종의 속칭이고-그러나 언론에서도 모두 이 용어를 쓴다- 정부의 정식문건에서는 '영구거민이 아닌 사람'(非永久性居民), '內地에서 單程證을 들고 홍콩에 새로 와서 정착한 사람'(內地持單程證新來港定居人士)[4] 또는 간단히

4) 單程證(One-Way Permit)은 內地人들에게 발급하는 홍콩행 통행증의 종류로서, '편도통행증'인 單程證은 홍콩에 가서 돌아올 필요가 없다, 즉 홍콩에서

'새로 와서 정착한 사람'(新內港定居人士)이라는 용어를 쓴다. 따라서 사회의 관습과 법적 원뜻을 참조할 때 신이민은 다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합법적 경로를 통해 홍콩에 이주해 왔으나 아직 만 7년이 되지 않아서 영구거민이 아닌 사람.

이 신이민은 공식적으로 홍콩인 신분을 지니며 홍콩신분증을 얻을 수 있다(단 그들의 신분증은 '비영구거민 신분증'으로서 만 7년 거주한 후에야 비로소 '영구거민 신분증'을 얻는다). 홍콩에서 일상적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할 때, 즉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열고 핸드폰을 사고 신용카드를 만들고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받는 질문인 "당신은 홍콩인인가?"에서 '홍콩인'은 이 비영구거민들까지도 포함하여 홍콩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또한 주로 內地의 불법체류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찰의 신분증 검사에서도 비영구거민 신분증은 홍콩인 신분증의 일부이다. 신이민은 엄연한 홍콩인이다.

2) 신이민은 홍콩인이 아니다: 시민권

그러나 신이민은 홍콩에서 온전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1984년의 중영(中英)연합성명에 따라 1987년 입경조례에 '영구거민' 개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대비되는 雙程證(Two-Way Permit)은 '왕복통행증'으로서, 여행 등의 일로 짧은 기간동안 홍콩에 갔다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들은 內地의 공안국에서 발급되며, 單程證의 발급을 둘러싸고 부패에 대한 의혹이 홍콩에서 계속 제기되자 1997년 5월부터 공식적인 심사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른 계산법을 공개하여, 內地人들은 자신이 현재 몇 점으로서 대체로 언제쯤 되면 單程證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單程證은 현재 하루에 150명에게 발급되며, 홍콩에 오는 內地 이주민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서 홍콩인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에는 單程證 중 일부를 전문가들 전용으로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념이 도입되면서, 이후 홍콩에서 주민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영구거민 여부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이 '영구거민'은 사실상 홍콩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온전한 '홍콩인'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식민시대에도 '식민지에 속하는' 사람들(1936년 규정), '홍콩본토인사'(1971년 규정) 등의 범주들이 만들어졌지만 이 규정들은 주로 홍콩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의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화인들은 '華裔居民'(Chinese Residents)(1971년 규정) 등으로 따로 범주화되었다. 1987년에 이르러 만들어진 '영구거민'은 '거류권'(居留權, Right of Abode)을 지니는 바, 이 거류권은 입경권, 조건제한 없이 거류할 권리,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비영구거민, 즉 신이민은 이러한 거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선거권·피선거권이 없으며, 행정장관을 비롯하여 주요 관원과 공무원을 맡을 수 없다. 또한 公屋(공공임대주택, 이 글의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등 주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이민은 단순히 홍콩인 중의 신참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권을 지니지 못하는 '비-시민'(non-citizen)이다. 신이민은 온전한 홍콩인이 아니다.

3) 신이민은 홍콩인과 다르다: 홍콩인들의 정체성

한편 공식범주로서의 신이민이 생겨나기 전에 홍콩에는 이미 신이민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이는 강한 경멸적 뉘앙스를 내포한다. 이 때 신이민은 70년대 말부터 서서히 홍콩인 자신에 대한 우월감 속에서 대비되어 온 '大陸人'(낙후된 농촌을 대표하는)을 의미하고, 특히 홍콩에 사는 大陸人들, 즉 국제도시 홍콩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탐욕스럽게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여기서 '신'(新)자는 '홍콩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홍콩사회에 문제를 야기하는'을 의미하는 별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郝在今(1997: 105)은 "어떤 이는 70년대 이후의 이민을

모두 신이민이라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50년대 이후의 이민을 모두 신이민이라 할 수도 있으며, 홍콩에서 출생하지 않은 이들을 모두 신이민이라 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한다. 이 경우 지극히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신이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홍콩인과 대립되는 內地人에 대한 무시를 담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용어가 '차별'을 담고 있으니 쓰지 말아달라면서 홍콩정부의 '평등기회위원회'에 문제제기(投訴)하기도 하였다(李谷城 2000: 89).

이러한 용법에서는, 공식적 신분에서의 영구거민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홍콩에 온 지 단 하루밖에 안되었더라도 그가 광동사람이어서 광동어를 유창하게 하고 홍콩생활에 능숙하다면 길거리에서는 누구도 그를 신이민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반면 홍콩에 온 지 20년이 넘었더라도 여전히 광동어에 서투르다면 그는 어디서나 신이민이라며 손가락질받을 것이다. 또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홍콩에 와서 사는 內地人이라면 '사장님'(老板)(광동어로는 '老細')이라 불리우지 결코 신이민이라는 딱지를 얻지 않을 것이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만일 허름한 옷차림으로 어눌한 광동어를 사용한다면 그는 어김없이 '신이민'으로 여겨져 냉대를 받을 것이고(알아듣기 힘든 빠른 광동어로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살 거면 건드리지 마!"), 만일 세련된 옷차림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표준어(普通話)를 사용한다면 그는 內地의 돈많은 여행객으로 여겨져 환대를 받을 것이다(서투른 표준어로 "사장님, 뭐가 필요하셔요?").

홍콩에서 현재 신이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에는 공식용어와 경멸적 지칭어의 두 가지 용법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 용어 자체가 이미 전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비하하는 어감을 지닌다. 신이민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대중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홍콩의 대중문화는 1949년 이전만 해도 중국문화의 영향 안에 있었고 따라서 '변방'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49년 이후, 특히 60년대부터 현대적인 대중문화가 크게 발전하고 70년대부터

홍콩출생인구가 늘면서 홍콩특색을 지닌 토착적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홍콩 영화산업의 흥성과 전자매체의 보급, 신문잡지의 번성 속에서 신속히 성장한 대중문화는 더이상 '중국'을 자신의 뿌리나 중심으로 여기기보다는 '홍콩'이 상징하는 현대화와 도시화에 대한 긍정과 자부심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陳啓祥 1998; 谷淑美 1999).

특히 1967년 폭동 이후 식민정부에 의해 內地와 대비되는 '자유로운 국제도시 홍콩'이라는 의식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식민통치가 점차로 정당성을 얻으면서, 성공한 홍콩인 대(對) 성공하지 못한 大陸人의 구분은 홍콩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70년대 말 방영된 '夢中人'이라는 TV드라마에서 '阿燦'이란 인물은, 內地에서 온지 얼마 안된, 허름하고 촌스러우며 홍콩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쩔쩔매고 그러면서도 홍콩의 번영을 강하게 열망하며 햄버거를 탐욕스럽게 먹는 것으로 정형화되는 인물이었고, 주윤발이 맡은 인물은 홍콩에서 자란 능력있고 세련된 친형으로서 자신의 동생을 보살펴준다. 크게 유행한 이 드라마 이후 '阿燦'은 곧 內地 신이민을 경멸적으로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다. 80년대의 영화들에서는 內地 신이민에 대한 비웃음과 동시에 內地의 불법입경자들('人蛇')[5]에 대한 공포감도 계속 표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谷淑美(1999: 27)는, 홍콩의 주류담론에서 성공·근면 등의 전형적 홍콩인은 주체가 되고, 이 주체의 시각에서 타자(신이민과 大陸人)들이 배제되고 검열된다고 지적한다.

본래 홍콩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어온 주요 대상은 內地의 불법입경자로서, 예를 들어 홍콩의 빅토리아 피크(Victoria Peak)는 식민

5) 밀입경자를 가리키는 용어는 '偷渡客'(몰래 넘는 사람)이지만 홍콩에서는 심지어 신문이나 책에서도 '人蛇'(사람뱀, 뱀처럼 국경을 몰래 넘는 사람)라는 용어를 쓰며, 이는 매우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함의를 지닌다. 이처럼 홍콩에서는 內地人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담겨있는 광동어 표현들이 많으며, 이것들은 內地人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시대에 부유한 영국인들만 사는 지역이었지만 밀입경해온 內地人들이 여기에 많이 숨는 바람에 점차 치안이 나빠지고 위험한 지역이 되었다고 홍콩인들은 말한다. 또 연구자가 사회단체에서 일할 때에도, 청소년 재활원 등 각종 범죄와 관련되는 시설들에서는 '불법입경자'(illegal immigrant)의 영어 이니셜을 딴 "I I"라는 용어가 하나의 독립적 범주로서 이야기되고 가장 위험한 이들로 분류되고 있었다. 그러나 80년 이후 이러한 불법입경자들은 홍콩의 끊임없는 소탕노력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제는 신이민이 그런 낙인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연구자는 홍콩인들로부터 종종 어느 지역은 신이민이 많이 살아서 치안이 안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홍콩에서 신이민은 심지어 더 낙후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보다도 강한 배척의 대상이 된다. 홍콩인들은 외국인 가정부를 20만명 넘게 고용하면서도 內地 신이민을 가정부로 쓰는 것은 꺼린다. 그 이유는 신이민은 "게으르고 말도 안듣고 주인집에서 전화를 걸거나 다른 사적인 일을 하며, 현대화된 가전제품들을 쓸 줄 모르고 영어도 못하고, 임기가 다 되어도 돌아가지 않고 홍콩에 어떻게든 남으려고 하며, 심지어 주인을 유혹해서 말썽이나 일으키기"(李谷城 2000: 90) 때문이다. 신이민은 결코 홍콩인이 될 수 없다.

4) 신이민은 홍콩인이다: 신이민 자신의 정체성

그러나 이처럼 홍콩사회에서 구분되고 배제되는 범주로서 존재하는 신이민은 하나의 독립적인 집단이 될 수는 없는데, 이는 신이민이라는 용어의 지시대상이 혼재되어 있고 신이민들이 계속 '홍콩인' 속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즉 공식적 신분으로서의 신이민(비영구거민)은 7년 거주 후에는 홍콩인(영구거민)이 되며, 앞에서도 언급했듯 광동어를 잘하고 홍콩생활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홍콩에 온 그 순간부터 홍콩인으로 불리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이민들이 자신을 결코 '신이민'이라는 범주로 정체화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신이민

이 하나의 독립된 집단이나 긍정적 범주로 존재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다. 즉 '신이민'은 공식적으로든 일상적으로든 홍콩에서 그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일 뿐, 그들이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데에는 절대로 쓰이지 않는 이름이다.

홍콩에 와서 살게 된 內地人들은 누구나 빨리 광동어와 홍콩생활에 익숙해짐으로써 이 신이민이라는 딱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며, 홍콩인의 습관과 옷차림을 계속 모방하고 그 속에 흡수되고자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신이민이라 불리우지 않고 홍콩인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며, 예를 들어 홍콩에 온 지 얼마 안된 사람이 광동어를 잘하여 사람들로부터 홍콩인으로 오해될 때 그는 결코 자신이 신이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비록 정치적 권리가 없고 몇 가지 복지혜택의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신이민'이지만, 실제생활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홍콩인인 것이다. 이렇게 신이민이라는 범주는 긍정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그저 홍콩인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부여되는 낙인으로서만 존재하게 된다. "盲流 등의 경멸적인 범주들은 계속적인 낙인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즉 이들은 사회의 영구적인 추방자로 남으며, 이들의 유일한 정체성은, 온전한 시민의 특권층에 들지 못한다는 점뿐이다"(Pieke 1999: 12).

그리하여 신이민은 자신을 홍콩인으로 간주한다. 그들에게는 신이민이란 없다. 그저 자신을 무시하려는 홍콩인들이 사용하는 '신이민'이라는 용어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홍콩에서 어디에나 편재하는 신이민이라는 범주는 너무나 분명하면서도 텅 비어있다. 여기에는 억압받는 이들의 저항도 연대도 존재할 수 없다. 끊임없이 여기에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의 몸부림과 그들을 이 범주에 밀어넣으려는 사람들의 폭력이 존재할 뿐이다.

4. 신이민에 대한 담론과 현실의 괴리

연구자가 홍콩인의 가정집에 월세로 살고 있던 어느 날, 인권단체의 모임에서 알게 된 신이민 여자아이가 돈이 없어서 하루에 빵 한두 개만 먹고 산다는 말을 듣고 연구자가 한국의 과자들을 가져다 주려고 싸들고 나가다가 집주인 모녀와 마주쳤다. 아주머니 역시 홍콩 출생이 아니라 內地에서 온 이주민이고 內地에 가까운 친척들이 살고 있으므로 연구자는 충분히 이해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 신이민 아이의 이야기를 꺼냈으나, 돌아온 반응은 격분과 긴 훈계였다. 자상하던 집주인 아주머니에게서 처음으로 본 흥분한 모습, 그리고 자신도 20년 전에 內地에서 온 이민이면서 신이민에 대해 격렬한 혐오감을 드러내던 모습은, 조사과정에서 겪은 최초의 정신적 충격이었다.

다음은 그 아주머니가 쉬지도 않고 늘어놓은 말 중의 일부이다:

> 그런 신이민들 말을 뭐하러 믿어? 大陸에서 온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아주 게으르고, 일도 안하려 하고, 홍콩에 공헌한 것 하나도 없으면서 정부에서 돈만 받아먹어. 내가 제일 혐오하는 게 大陸에서 온 놈들이야. 내 직장동료들도 大陸人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몰라. (…) 나는 20여 년동안 홍콩에 공헌했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알아? 애 데리고 출근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서 겨우 이 낡은 집 하나 샀어. 근데 大陸에서 온 놈들은, 새로 지은 좋은 집을 정부에서 주고, 일도 할 필요 없고, 맨날 마작이나 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주고, 이게 공평해? (…) 홍콩에 오면 누구나 정말 행복해. 복지가 얼마나 잘돼있어? 아프면 병원비 몇십HK$ 내면 다 면제야. 물론 사립병원은 비싸지만. (…) 大陸에서 온 사람들은 홍콩에 공헌한 것 하나 없이 여기 오자마자 그걸 누린다구. 홍콩의 거지새끼들은 다 大陸에서 온 사람들이야. 신체 멀쩡하면서 가만히 누워서 정부 돈이나 받아먹으려고 홍콩에 오는 신이민들을 난 정말

이지 혐오해. 어이, 張小姐, 너 인생경험이 별로 없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동정심이나 들고 그러지? 정신차려. 속고 다니지 말라구.
주인집 딸) 그래, 중학생인 나도 그런 사기꾼 거짓말에는 안속는데…. 개네들은 나보다도 홍콩에 공헌한 게 없어. 나는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봉사단체가 파는 스티커라도 산다구. 그러면 그게 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근데 개네는 홍콩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차별받는 신이민의 입장에서 홍콩이 불공평한 사회라면, 이 '구(舊)이민' 아주머니의 입장에서 홍콩은 반대로 신이민에게만 유리하고 자신에게는 불공평한 사회이다. 이처럼 보는 입장에 따라 서로 너무나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홍콩의 신이민은 가장 차별받고 배제되는 집단이면서도, 사회의 온갖 혜택을 무임승차하여 누리는 이들로 비난받는다. 이러한 일견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은 홍콩이 1980년대에 겪은 경제적 재구조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홍콩경제는 중국의 개방과 함께 급속히 재구조화되어, 노동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적인 생산 부문은 중국 남방으로 옮겨가고 고부가가치 부문이 홍콩에 남게 되었으며, 홍콩경제는 서비스 지향으로 급속히 전환하였다. 이러한 경제 재구조화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홍콩의 경우 특히 그 속도는 유례없이 빨랐다. 이와 함께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그리고 덜 숙련된 이에 대한 수요로부터 더 숙련된 이에 대한 수요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로 인한 중요한 변화는, 70년대 이후로 홍콩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된 '상승이동에 대한 믿음'이 점차 실현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기회의 땅' 홍콩이라는 담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홍콩에서 이제 요구되는 유동적이고 전문적인 일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지 못한 하층민은 맨손으로 와서 부자가 되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이다. Lam and Liu(2000: 30)는 이주민을 많이 받는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홍콩의 경우 본지인과 이주민의 수입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을 통계자료로 보여주면서, 이는 홍콩경

제가 서비스 위주로 바뀜에 따라 이주민들이 內地에서 받은 교육이 실제 직업에서 지닐 수 있는 가치가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는 홍콩의 하층민들이 신이민에 대해 가장 큰 반감을 가지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예전에는 사다리에서 누구나 위를 향해 끝없이 올라갈 수 있었거나 적어도 그런 믿음이 보편적이었지만, 이제 점차로 사람들은 자신이 더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더구나 계속 內地에서 몰려오는 신이민들이 자신의 취약한 자리마저도 위협한다고 생각하게 된다(Siu 1986).

이러한 경제적 현실과 관련된 위협감이 더해져 홍콩에서는 식민시대에 형성된 복지철학과 이데올로기, 즉 개인과 가족이 복지의 주요 제공자요,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는 이들은 사회의 기생충이라는 관념이, 이제 상층민들의 하층민에 대한 차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층민들이 다시 자신보다 못한 또는 자신과 비슷한 이들을 배제하는 데에도 동원되기에 이르며, 그 주요 타겟은 신이민이 된다. 그리하여 아래에서 보게 되듯 사실 신이민들은 홍콩의 복지로부터 배제되고 있으면서도 "홍콩의 복지를 모두 독점하며 심지어 그 복지를 노리고 몰려오는 이들"이라는 낙인을 계속 부여받게 되고, 성공한 이주민들은 더이상 따라야 할 모델이 아니라 본지인들의 질시의 대상이 된다.

이런 현상은 97년 반환과 함께 금융위기로 인해 홍콩의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즉 7 · 80년대만 해도 신이민에 대한 비하는 그저 홍콩도시생활에 적응 못하는 촌스러운 신이민들에 대한 비웃음이던 것이, 경제 위기와 함께 자신의 것을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협감이 생겨나면서 이를 타자로서의 신이민에 투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신이민들이 빼앗아간다"며 본지인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의 주요 내용은 생활보조수당금(綜援)과 임대주택(公屋)이다.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신이민에 항상 붙어다니는 딱지는 "綜援을 얻는"이라는 형용사이다. 이 '綜援'의 원 명칭은 '종합사회보장원조계획금'으로서, 1971년

부터 저소득 · 무소득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97년 반환 후 98년 4월 1일부터 행정장관은 역대 최고로 후한 綜援계획을 추진하였고 노인 · 장애인 등이 얻을 수 있는 특별수당들도 더 늘어나게 되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매월 2,410HK$(1US$=7.8HK$)이지만, 한 가정에 장애인 · 실업자 · 노인 등이 모두 있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綜援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고의 경우 총액이 매월 거의 10,000HK$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홍콩정부는 1998년 UN '경제 · 사회 및 문화권리위원회'에 낸 보고서에서, 1998년 6월 30일까지 홍콩에서 총 320,700명이 총 80억HK$의 綜援金을 타갔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최근 홍콩경제가 점점 악화되어 실업자들이 늘면서 이러한 綜援의 지출은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綜援을 얻는 사람은 다른 납세자들이 땀흘려 일해 번 돈을 놀면서 타가는 이들로 여겨지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의 화살이 유독 신이민을 향하는 것은, 현실을 따져보면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일단 이 綜援을 얻는 데에는, 홍콩에 거주한 지 만 1년이 되었어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있다. 따라서 이제 막 홍콩에 온 진짜 '신이민'들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있어도 綜援을 얻을 수가 없다(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정부의 사회복지부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도 있다). 또한 사회단체들의 실제 조사에 따르면 綜援을 얻는 신이민은 전체 綜援 수혜자 중 극히 일부를 차지할 뿐이다. 그러므로 신이민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은 사실 근거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점은, 신이민이 속한 많은 가정들이 綜援을 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중국과 홍콩 사이의 이민정책으로 인해 야기된다는 점이다. 즉 內地의 자식들만이 홍콩에 올 수 있는 통행증(單程證)을 얻고 부인은 못얻는 경우가 많은데, 홍콩의 남편은 일을 하다보면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일

을 그만두고 綜援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상황인데도 그는 '綜援을 받아 놀고먹는 신이민'이라 비난받게 되는 것이다.[6]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남자는 신이민이 아니고 다만 신이민 자식을 둔 '신이민 가정'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이 남자가 홍콩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이들고 허름하며 綜援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다가 광동어까지 잘 못한다면 그는 이웃에 의해 신이민으로 불리우게 된다.

다음으로 홍콩의 대표적인 복지혜택으로 여겨지는 주거제도인 公屋을 보자. 홍콩의 주거시설에는 공공임대주택인 公屋, 개인소유의 私人樓와 중저층소득자를 위한 居屋의 세 가지가 있다. 그 중 하층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公屋은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영구 거주할 수도 있으며 수입이 높아지면 월세만 더 높게 내면 되고, 그렇더라도 일반 私人樓나 居屋에 비해서는 비용이 훨씬 낮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하여 창피해하거나 빨리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公屋부자'(점점 수입이 높아지면서도 公屋에 계속 살아서, 집값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재산이 많아진 사람을 가리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다. 초기의 公屋은 매우 열악한 것들이 많았지만 점차 깨끗하고 쾌적한 公屋들이 지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웬만한 公屋은 낡은 私人樓보다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公屋을 신청한 사람들은 평균 6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많은 본지인들은 신이민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 주인집아주머니

6) 필자가 홍콩에 있을 때의 어느 TV드라마에서는, 사회복지 일을 하는 주인공 여자가 어떤 불행한 상황의 남자를 동정하여 그가 綜援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리를 다친 장애자라던 그 남자는 정상인이었고, 불쌍한 척하던 그의 아들(신이민)은 아버지와 함께 희희낙락 웃으며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가 했던, 그리고 숱한 홍콩인들의 입에서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도 집을 얻기가 힘든데 신이민들은 홍콩에 오자마자 즉각 집얻고 綜援 얻어서 집에서 마작하며 놀고 먹는다"는 말은 엄격히 보면 틀린 말이다. 公屋의 신청자격기준에는 홍콩거주가 7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홍콩에 온 지 7년이 안된 신이민은 公屋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누구나 탐내는 홍콩의 복지제도인 公屋은 사실 그 역사 자체가 內地이주민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949년 신중국의 성립과 함께 홍콩으로 대거 몰려온 內地人들은 구룡반도의 石硤尾지역에 임시로 판잣집을 짓고 모여살고 있었다. 당시 식민정부는 內地 난민들을 홍콩의 정식 주민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여기저기에 임의로 판잣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고, 1953년 12월 25일 石硤尾지역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여 수만 명이 집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식민정부의 전혀 '관대하지 않은' 태도로 인해 생겨난 판잣집지역에서 숱한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지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거주지 마련을 위해 公屋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점차 '관대한' 식민정부의 대표적 복지정책으로 손꼽히게 된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公屋이 결코 수요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이었다는 점[7] 그리고 公屋의 성격이 식민통치의 목적과 연관되어 왔다는 점, 즉 정치적 안정제이자 경제적 도구요 사유재산시장에 대한 충격완화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정부의 체제정당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왔다고 지적한다(谷淑美 1999;

7) 처음에는 세 명 또는 그 이상의 가족에게만 제공되어 부부 또는 혼자인 사람들은 배제되었고, 1981년엔 15년 이상 홍콩에 거주한 자라는 조건이 도입되었으며, 반발에 부딪치자 같은 해 12월 10년 기한으로 바뀌었고 1984년 7년으로 낮춰졌다.

Chui 2001).

또한 홍콩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신이민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부 · 민간기구들이 많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신이민이라는 용어가 內地人에 대해서만 쓰이듯, '적응을 못하는 신이민' 이라는 것도 오직 內地人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담론이라는 점이다. 사실 이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홍콩생활, 즉 배우기 어려운 광동어, 중국어 중에서도 복잡한 번체자(繁體字), 각종 사회제도와 일상생활의 기본정보, 취업 등의 문제는 외국인에게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특히 서양인들은 홍콩생활에 적응을 잘 못할 것이라 여겨지지도 않고 또 실제로도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홍콩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홍콩에선 영어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중국어(표준어, 광동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훨씬 대우받기 때문이다.

특히 서양인에 비해 內地에서 온 신이민들은 대부분 하층민이기 때문에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게 되고, 학생들은 자신의 內地학력도 인정받지 못하여(주로 영어 때문에) 낮은 학년으로 강등되어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리하여 신문에는 홍콩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이민학생들에 대한 기사가 종종 실리며,[8] 이들을 돕기 위한 민간기구는 수십 개에 달한다. 그러나 Chui(2001: ii, 12-13)에 따르면, 홍콩인들은 이러한 각종 서비스들의 비용이 모두 정부의 국

8) "신이민 학생들은 홍콩에 대한 적응이 힘들어서 정신적 문제가 심각하다" (1999. 4. 30.太陽報); "신이민 청소년은 本地人청소년에 비해 위축되어 있고 긴장하고 외로워하고 영어능력이 떨어지며 심리적 압력 때문에 종종 아프다. 그리고 신이민 어머니들은 홍콩에 온 지 오래되었을수록 집안일에 있어서 남편과 점차로 의견갈등이 심해져서 가정에 대해 불만이 커진다."(1999. 5. 12.成報); "20%의 신이민 학생들의 정서가 부정적이다. 65%가 內地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사회와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2000. 9. 8.東方日報) 등.

고세입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원래 통합적 기능을 하고자 한 이런 공공 서비스들이 역설적이게도 분열적인 효과를 야기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홍콩의 본지인들이 신이민에 대해 가지는 반감이 어떠한 현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살펴보았고, 여기에서 그들의 관념 중 많은 부분이 실제와 정확히 부합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9] 그러나 점점 경제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홍콩의 현실에서 그동안 힘들게 이뤄온 자신의 것들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위협감이 지속되는 한, 더구나 그러한 경제적 악화가 우연히도 홍콩의 중국반환과 시기상 겹침에 따라 이러한 '악화'의 근원이 모두 중국반환으로 돌려지면서 신이민들의 근원지인 內地에 대한 반감이 지속되는 한, 홍콩 내의 타자로서의 신이민에 대한 거부감은 그다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5. 신이민을 '홍콩인'으로 만들기

홍콩인과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 內地이주민들은 그러나 그 '차이'를 인정받기보다는 홍콩사회와 문화에 통합될 것을 요구받으며, 이는 정부 뿐 아니라 신이민을 도우려는 민간기구와 사회단체들에 의해서도 행해진다. 특히 위에서 보았듯 이들에게는 '홍콩인의 것들을 빼앗아간다'는 부정적인 낙인이 부여되기 때문에, 신이민을 돕는 사람은 이 낙인을 없애고자 끊임없이 이들이 '自力更生'한다는

9) 장수현(2001)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이미 극도의 고통을 겪으며 한계상황에 처해있는 북한 난민들에 대해 주위사람들, 심지어 그들을 돕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낙인찍고 현실에 그다지 근거하지 않은 부정적 담론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점을 강조하게 되며 이는 홍콩인의 정체성과 연결된다. Ong(1996: 737-8)은 이주민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규범의 형성에 있어서 국가기구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구 · 집단들의 규율적 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실 홍콩 내에서 신이민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정체성 · 적응문제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대부분이고,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심도있는 연구는 전무(全無)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홍콩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한 분석과, 연구자가 신이민관련 단체에서 참여관찰을 했던 바에 기반하여, 신이민이 어떻게 '홍콩인'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홍콩반환 후 行政長官의 첫번째 市政報告(1997.10.8)에서 그가 신이민에 대하여 특별히 따로 한 언급을 보자.

> 우리는 또한 홍콩인의 內地자녀들을 돌봐야 한다. (…) '仁厚爲懷'가,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태도이다. 우리의 책임은, 이제 막 우리 사회에 들어온 이 시민들이 빨리 자신이 홍콩사회의 한 성원임을 깨닫고 동시에 빨리 사회에 대한 공헌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아동들을 맞아들일 여러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 현재의 시민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영향이 안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왔고, 정부는 각계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왔다.

여기에는 신이민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태도가 혼재되어 있다. 첫째, 그들을 너그럽게 품어주어야 한다. 둘째, 그들을 홍콩사회에 융합시키고 빨리 공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홍콩인들이 누리는 서비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 중 선택적으로 태도가 취해지는 것이다.

홍콩에서 신이민을 옹호하는 공개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다. 그러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신이민은 홍콩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

> "신이민 중에서 綜援을 얻는 이는 10% 뿐이다. 그것도 單親가정[10]과 노인이 주로 얻는다. 이들도 자력갱생하려는 이들인데 상황이 안되는 것일 뿐이다."[11]

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통계조사를 통해, 신이민이 綜援을 얻는 비율이 적음을 강조한다.[12] 이는, 綜援을 얻으면서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해온 홍콩사회의 정체성에도 정확하게 부합하며, 綜援을 얻는 이들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배제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신이민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없이 신문에 크게 실린다. 그는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스스로 노력하여 적응에 성공한 사람으로 이야기되고, 이렇게 역경을 이겨내고 自强하는 것이 바로 홍콩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담론(2000. 8. 10. 東方日報 사설)이 여기에 덧붙여진다. 이렇게 신이민 학생이 칭찬받는 경우는 오직 어떠한 냉대와 차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여 홍콩생활에 적응하고 성공할 때 뿐이다. 최근에도 어느 어려운 상황의 가정이 綜援도 신청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생활하였으며 특히 신이민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를 도와 일까지 한 사례에 대해 홍콩의 대학교수는 칭찬하면서 "新移民이 '게으른 기생충'(大懶蟲)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논평하였다(2002. 7. 2.蘋果日報). 이러한 과정을 거쳐, 끊임없이 內地로부터 오는 새로운 성원을 받아들이

---

10) 부모 중 한 쪽만 있는 가정.

11) 梁林天慧, "勿遷怒新來港移民", 1999. 6. 7. 明報.

12) 그러나 이 사회단체들이 내는 통신지 등은 사실 그 단체에 관여하는 이들이 주로 보는 것이며 일반 시민들이 이를 접할 기회도 별로 없고, 또 설사 가끔 신문에 이런 통계가 조그맣게 실리더라도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면서도 홍콩사회는 별다른 변화가 필요없이 재생산될 수 있고, 이 신참자들도 그저 하루빨리 '홍콩인'이 되고자 노력할 뿐이다.

신이민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반박하려는 시도는 때로는 '이들도 친정부적일 수 있고 사회의 불안세력이 아니다'는 담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사실 위험한데, 신이민은 홍콩에 필요하고 긍정적인 사람일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더욱 배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홍콩대학에서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해온 유명한 학자 鍾庭耀는 설문조사(Chung 2001)를 통해, 신이민은 불만세력이고 정부에 대해 공격적이라는 일반적 믿음에 대해 반박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本地人에 비해 홍콩정부를 더 믿고 行政長官에 대해서도 덜 비판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의 결론에 따르면 신이민은 홍콩사회를 탈안정화시키는 세력이 아니다. 이러한 연구는 신이민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다소 약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홍콩사회 안으로의 포섭을 벗어날 수 없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에겐 더 큰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홍콩에서 신이민을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사회단체 '香港社區組織協會'는 하층민들을 직접 접촉하며 돕고 정부에 대해서도 가장 용감하고 신랄하게 발언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대표인 何喜華는 홍콩의 인권·민주의 상징인 동시에, 항상 하층민들을 도와서 시위 등을 만들어내어 사회를 시끄럽게 만든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의 반감의 대상이다. 이 단체에서 일요일마다 여는 신이민부녀모임에 연구자가 참여관찰할 때 이 모임은 항상 신이민이 필요로 할 만한 기본적인 정보 소개에 이어, 홍콩생활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심리적 위축감을 벗어나야 한다, 자신감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거기에서 들었던 간사의 이야기 중 가장 인상적이요, 동시에 사회단체가 본의아니게 만들어내는 '홍콩' 담론에의 포섭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신문에 발표된 홍콩의 조사보고서들에서는, 홍콩에 알고보니 빈부 격차가 아주 크다고 발표했어요. 월급쟁이(打工仔) 중 수입이 제일 높은 이와 낮은 이의 차이가 글쎄 20배래요. 60만명이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어떤 나라들은 세금으로 이런 격차를 조정하는데 홍콩은 안그래요. 그렇게 같이 나눈다는 의식이 없어요. 중국은 더하지요. 이번에 어떤 홍콩애(지체장애인)가 大陸에 잘못해서 들어가서 실종되었을 때 홍콩에서 난리나고 大陸정부에서도 난리나는 걸 보고 大陸에서 어떤 사람들은, 홍콩사람은 왜 저렇게 특별대우를 받냐고 억울해했지요. 그렇지만 大陸과 달리 홍콩은 文明사회잖아요? 사람을 위주로 하잖아요(以人爲主)? 홍콩에선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大陸과 달라요. 홍콩의 어떤 점들이 소중한지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홍콩인들도 어떨 땐 홍콩의 어떤 점이 소중한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법치 같은 것. 홍콩인도 물론 이기적인 사람들 많아요. '사회' 관념이란 게 없어요. 왜냐면 홍콩정부도 안 가르쳐주니까. 97년 전에는 식민지정부였으니 그런 걸 가르쳐줄 리가 있어요? 다만, 그래도 홍콩은 문명 · 개방된 사회라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식을 얕보지 마세요. 어떤 애는 廣州 출신 신이민이었고 바로 이 지역에 살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영국 런던대학에 유학갔어요. (사람들: "와-!") 걔도 예전엔 아주 자기비하가 심했어요. 홍콩에선 여러분 돈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大陸과는 달리 여기는 그럴 때 도와주는 사람 많아요.

간사는 매주마다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위축되어 있는 부녀자들을 격려하고, 內地에서와는 달리 홍콩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며, 홍콩사람들로부터 '신이민'이라고 무시받더라도 절대 스스로나 자식들을 비하하지 않도록 강조한다. 이는 신이민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內地와는 달리 인권 · 민주가 존중되는 문명사회인 홍콩'이라는 주류 담론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위의 말을 들을 때 연구자가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 간사 자신도 고등학생 때 신이민으로 홍콩에 왔고 누구보다도 신이민들의 어려운 상황과 고충을 아는 사람으로

서 이렇게 열심히 돕고 있으면서도, 內地에 대한 부정적인 홍콩인의 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가 예로 든 영국에 유학갔다는 신이민 학생이 만일 영국이 아닌 중국으로 "유학갔다"면 누구도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저 기껏 홍콩에 오더니 다시 도루묵이라며 혀를 끌끌 찼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현재의 주권국인 중국보다 예전의 종주국인 영국을 훨씬 높게 평가하는 홍콩인들의 담론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기원지인 중국 內地는 또한번 폄하된다. 이는 그들이 홍콩에서 무시받는 근거를 그 스스로가 재생산하는 것이다.

6. 나가며: 인도주의적 관점을 넘어서

신이민들은 홍콩의 엄연한 '시민'이면서도 시민권으로부터 배제된다. 온전한 시민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오래 홍콩에 살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기간동안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주해야만 '홍콩영구거민' 신분을 얻을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홍콩인으로부터 구분되고 배제된다. 그러나 '차이'가 분명하여 하나의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하층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內地의 신이민은 홍콩인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열악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인권단체들이 모임을 조직해 주지 않으면 그들 자신이 '신이민'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하거나 발언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 '신이민'은 당사자 누구나 벗어나고 싶어하는 범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돕기보다는 하루빨리 '홍콩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주민이나 소수집단에 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그들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을 주장하거나, 또는 그들이 자신의

'차이'나 정체성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저항적 실천을 만들어내는지-그것이 공개적 저항이든 숨겨진 사본(Scott 1990)이든-에 대한 주목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캐나다의 공식적 다문화주의에 대해 작가 네일 비순다트(Neil Bissoondath)가 가한 맹렬한 비난을 상기해야 한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로 인해 이주민은 언제나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간주되어 결코 국민 안에 포섭되지 못하며, 항상 사회가 강요하는 이국적 이미지에 부합되어야 한다(Martiniello 2002: 18). 더구나 이 글에서 제시하는 홍콩의 신이민처럼 '차이'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현지인과 똑같은 종족·인종·문화를 지닌 경우, '차이'에 대한 관용이나 문화상대주의라는 입장은 아무런 힘을 지닐 수 없다. 이 점에서 홍콩 신이민의 사례는 이주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Mahler(1998: 93)에 따르면 이주연구들에서는 이주민이 현재 속한 공동체들의 변형에 대해 행하는 역할이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주민 유입을 받아들인 여러 국민국가들 내에서의 외국인혐오·민족주의 등은, 이주민이 그 사회들을 변형시키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홍콩에서 內地이주민의 통합은 홍콩에게도 괴로운 것이었고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문화적 조류를 낳았다. "여기서 태어나 자란 본지인들에게, 홍콩은 점점 편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곳이 되어갔다"(Siu 1993: 31). 따라서 신이민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그들이 홍콩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차별받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홍콩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신이민들이 어떻게 차별받는지 뿐 아니라, '홍콩인' 정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신참자를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를 볼 수 있었다. 신이민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홍콩인'의 기준을 기꺼이 따르려 애쓰며, 홍콩에 존재하는 각종 조직과 기구들도 이 기준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민의 움직임이 경계를 약화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경계를 강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의 탈영토화라는 묘사는 부적절하다. 이주민들이 가서 사는 '외부의' 영토는, 무시될 수 없는 물질적 힘을 지닌다" (Guarzino 1998: 9).

그러나 이는 신이민들이 '홍콩인' 안으로 흡수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존재에 의해 홍콩인이라는 자아에 균열이 가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홍콩인'은 內地人에게서 나왔다. 현재 홍콩인의 부모나 조부모 중 內地 출신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홍콩인들은 이를 망각하고 자신과 內地人을 구분한다. 그들이 기억하는 역사의 시발점은 內地에서 와서 조국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살던 조상들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면서 화려한 국제대도시로 탈바꿈하고 관대한 유화정책을 쓰던 67폭동 이후의 식민정부에서부터 시작된다. "민족 내러티브의 시작을 구성하는 것은 망각이다" (Bhabha 1990: 31).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內地로부터 오고 있는 이주민들은, 홍콩인들의 이 망각을 허용하지 않는다.

홍콩인은 신이민을 자신과 구분하고자 하지만, 이 구분은 누가 보더라도 결코 명확할 수 없다. 신이민들 중 누구도 자신을 당당하게 '신이민'으로 정체화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홍콩에 오는 순간부터 '홍콩인'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주변적 위치에 있는 그들을 결코 집단적으로 연대할 수 없게 하고 취약한 개인으로 만들어 버리지만, 동시에 '홍콩인'은 그들에 의해 끊임없이 '오염된다'.

Hage(2001)는 원주민에 대한 식민자들의 거대한 폭력을 논의할 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즉 설사 식민자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더라도, 이는 피식민자의 상흔이 아닌 식민주의자의 상흔에 대한 치유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부끄러운 기억을 상기해 내려는 인도주의적 노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기억의 입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오염' 시키는지, 사람들을 깨끗할 수 없게 만들며 퍼져가는지의 문제로 사고할 것을 제안한다. "대량학살의 기억들은 기억들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것들은 관련된 사람들을 더럽힌다"(Hage 2001: 363).

홍콩인들은 內地人과 신이민에 대한 차별의 기억에 의해서뿐 아니라, 바로 그들의 물질적 침입에 의해 끊임없이 '더럽혀지고' 있다. Gatens and Lloyd(1999)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책임을, 주체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과거와 현재의 물질적 연결을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13] 하루에도 150명씩 밀려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신이민은, 더이상 단지 배제해 버리면 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렇듯 차별받는 이주민들의 존재가 현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우리는, 이주민 문제에 대해 인도주의적 관점이나 저항의 관점을 넘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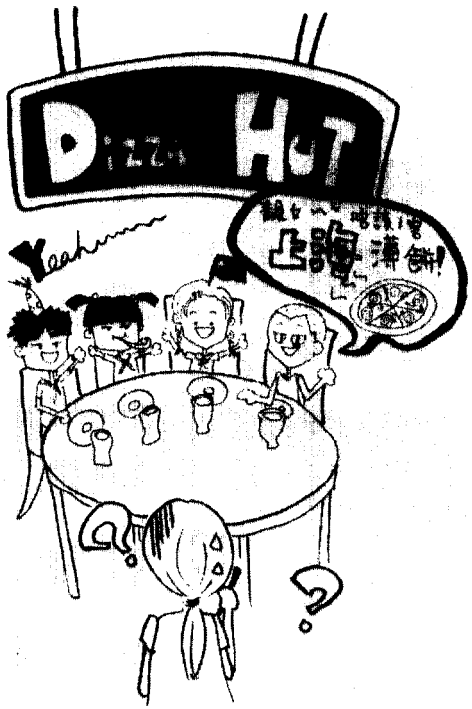
13) Moira Gatens and Genevieve Lloyd, *Collective Imaginings: Spinoza, Past and Present*(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Hage 2001: 350에서 인용.

〈참고자료〉

이 그림들은 모두 홍콩의 사회복지기구에서 신이민 아동들의 홍콩 적응을 돕고 동시에 그들에 대한 홍콩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펴낸 책 「入境故事 - 新內港家庭的眞實個案」(唐彩瑩 글, 官文慧 그림, 香港社會福利會 펴냄, 2000, 香港: 明報出版社)에 실려있는 삽화들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삽화들은, 신이민을 돕는 홍콩인들조차도 신이민에 대해 극히 정형화된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점, 그리고 그 이미지가 '홍콩인'과 확연히 구분되는 '大陸人'의 이미지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삽화들에서 공통적으로 신이민 아동들은 매우 촌스럽게 그려져 있으며, 특히 머리에 중국 국기를 꽂고 있거나 중국군인 모자를 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이렇게 '중국 국기'나 '중국 군인'은 '홍콩인'과 분명히 구분되는 '大陸人'의 표지인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삽화내용들은 '화려한 대도시 홍콩' vs. '낙후된 농촌 大陸'이라는 구도와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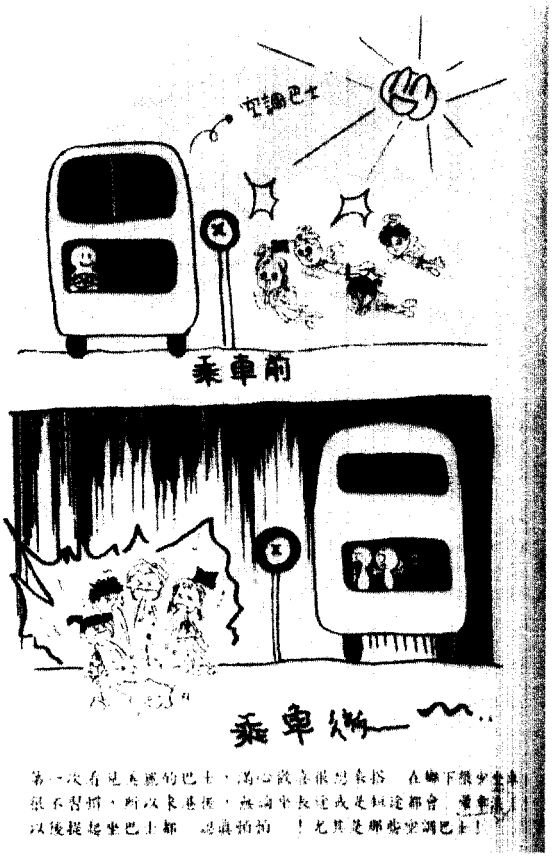
有一次上數學課，同學要逐個站起來背誦 乘數表 ，如果唸錯了或不懂的都要被罰站 我們幾位新來港的同學，不想被罰站，急起來使用鄉下話唸出來，其他同學都覺得很奇怪

1. 신이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각자 자기 고향의 방언으로 구구단을 외우는 장면. 삽화 밑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한번은 수업시간에 한 명씩 일어나 구구단을 외우게 하고 틀리면 벌을 서야 했다. 이제 막 홍콩에 온 몇 명의 우리 신이민학생들은 벌을 서기 싫다는 생각에 급히 일어나서 각자 자기 고향방언으로 외웠고, 다른 애들은 우리가 아주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했다".



上次家福會帶我們參觀 Pizza Hut 餐館，我們是第一次見 Pizza，我覺得跟我們的上海薄餅很相似呀！

2. 난생 처음으로 피자를 먹으면서 '상해식 전병(薄餅)' 같다고 이야기하는 신이민 아이들. 삽화 밑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전에 복지기구에서 우리를 데리고 Pizza Hut 음식점을 참관시켜 주었다. 우리는 난생 처음 피자를 보는 것이었고, 나는 우리 상해에 있는 전병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3. 처음으로 홍콩의 '에이컨달린 버스'를 타고는 적응이 안되어 구토를 하는 신이민 아이들. 삽화 밑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처음으로 아주 예쁜 버스를 보고는 너무 좋아서 꼭 타보고 싶었다. 우리 고향에서는 차를 탈 기회가 아주 적어서 차타는 것에는 적응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홍콩에 온 이후에는 장거리이건 단거리이건 차를 타면 구토를 해서, 버스 이야기만 나와도 무서웠다. 특히 에어컨이 달린 버스는 더 그랬다."

在鄉下時，同學們多數住同一條村，放學後都會去大家的家裏玩耍；
香港的同學卻沒有這些習慣，放學後就各自回家去

4. 신이민 아동들이 홍콩친구들에게 너희 집에 놀러가자고 하자 이상하게 바라보는 홍콩친구들. 삽화 밑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고향에 있을 때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같은 마을에 살아서, 방과후에는 모두 서로 집에 놀러가서 놀곤 하였다. 홍콩의 학생들은 이런 습관이 없어서, 방과후에는 각자 집으로 간다".

我由福建來到香港，第一句學會的廣東話是「炒飯」，因爲要解決買飯的問題，而且炒飯最易講，又經濟，結果一連吃了三個月炒飯，之後見到都想作嘔

5. 할 줄 아는 광동어가 '볶음밥'(炒飯)밖에 없어서 3개월동안 볶음밥만 먹은 신이민 아동. 삽화에서 신이민 아동은 속으로 '정말 광동어를 열심히 해야겠다. 밥먹을 때마다 맨날 "볶음밥"밖에 시킬 줄 모르니' 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볶음밥을 먹고 있고, 주방장은 '와, 정말 감동받았다. 내가 만든 볶음밥이 얼마나 맛있으면 저 애는 3개월동안 맨날 볶음밥만 먹을까' 라고 하고 있고, 삽화 밑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나는 福建에서 와서 처음으로 배운 광동어가 '볶음밥' 이었다. 밥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볶음밥' 이 제일 발음하기 쉬우니, 결국 3개월동안 볶음밥만 먹어서 나중에는 보기만 해도 토할 것같았다."

참고문헌

장수현

2001 "중국 내 북한 난민의 사회적 고통: 한계적 상황과 오점 만들기", 「在外韓人硏究」 9, pp.237-258.

장정아

2003 「'홍콩인' 정체성의 정치: 반환 후 본토자녀의 거류권 분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谷淑美

2001 "移民政策與身份建構 1950-1980", [政策訊] 第十三期, 香港理工大學應用社會科學系 社會政策硏究中心.

郝在今

1997 「英雄莫問出處」, 中國: 人民文學出版社.

李谷城

2000 "香港居留權爭議與「新移民」政策硏究", 「亞洲硏究」, 香港: 珠海書院亞洲硏究中心.

林潔珍 · 廖柏偉

1998 「移民與香港經濟」, 香港: 商務印書館.

Bhabha, Homi. K. (ed.)

1990 *Nation and Narr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Brettell, Carolinie B.

2000 "Theorizing Migration in Anthropology - The Social Construction of Networks, Identities, Communities, and Globalscapes," Caroline B. Brettell and James F. Hollifield (eds.) *Migration Theory - Talking Across Disciplin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astles, Stephen

1998 "Globalization and the Ambiguities of National Citizenship," Bauböck and Rundell, *Blurred Boundaries: Migration, Ethnicity, Citizenship*. Ashgate: European Centre Vienna, pp.223-244.

Chui, Ernest

2001 "Housing and Welfare Services for New Arrivals from China: Inclusion or Exclusion?,"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Immigration Law and Policies, The Department of 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Chung, Robert T.Y.

2001 "Integration or Segregation: The Political Attitude of New Arrival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Immigration Law and Policies, The Department of 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Clifford, James

1994 "Diaspora," *Current Anthropology* 9(3), pp.302-338.

Davin, Delia

1999 *Internal Migration in Contemporary China*. London: Macmillan.

Gilroy, Paul

1991 "It Ain't Where You're From, It's Where You're At …: The Dialectics of Diasporic Identification," *Third Text* 13, pp.3-16.

Hage, Ghassan

2001 "Polluting Memories: Migration and Colonial Responsibility in Australia." ("기억의 오염 - 호주에서의 이주와 식민의 책임", 박전일 옮김, 「흔적」 2, 서울: 문화과학사, pp.337-369)

Kearney, M.

1986 "From the Invisible Hand to Visible Feet: Anthropological

Studies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5, pp.331-361.

1995 "The Local and the Global: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ism,"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4, pp.547-565.

Lam, Kit-chun and Liu Pak-wai

2000 "Earnings Divergence of Immigrants," HK: Hong Kong Institute of Asia-Pacific Studies,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Mahler, Sarah J.

1998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Toward a Research Agenda for Transnationalism," M.P, Smith and Guarzino (eds.)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pp.64-102.

Martiniello, Marco

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윤진 옮김,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

Moore, Douglas Spencer.

2000 "Germany's Repatriation Policies and Nationality Tests in Russia: An Ethnography of Immigration Policy," Biko Agozino (ed.)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Migration Research-Interdisciplinary, Intergener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England: Ashgate.

Ong, Aihwa

1996 "Cultural Citizenship as Subject-Making: Immigrants Negotiate Racial and Cultural Boundaries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Anthropology* 37(5), pp.737-762.

Ong, Aihwa and Donald M.Nonini (eds.)

1997 *Ungrounded Empires-The Cultural Politics of Modern Chinese Transnationalism*. New York: Routledge.

Pieke, Frank N.

1999 "Introduction: Chinese Migration Compared," Frank N. Pieke and Hein Mallee (eds.) *Internal and International Migration - Chinese Perspectives*. Surray: Curzon Press, pp.1-28.

Pries, Ludger (ed.)

1999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 Aldershot: Ashgate.

Scott, James C.

1990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Siu, Helen H.

1986 "Immigrants and Social Ethos: Hong Kong in the Nineteen-Eighties," *Journal of the Hong Kong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6, pp.1-16.

———

1993 "Cultural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in South China," *Daedalus* (Spring), pp.19-43.

Sussman, Marvin B. and Barbara H.Settles.

1993 "Policy and Research Issues Regarding Family Mobility and Immigration," Barbara Settles, Daniel Hanks and Marvin Sussman (eds.) *Families on the Move: Migration, Immigration, Emigration, and Mobility*. New York, London: Haworth Press.

〈**Key concepts**〉: Immigrant, New Immigrants, Identity, Other, Citizenship

Immigrants as the 'Other': "New Immigrants" in Hong Kong

Jung-A Chang

There are many immigrants in HK society, but only the immigrants from Mainland China are called "New Immigrants", which conveys negative implications. This phenomenon could be interpreted as discrimination towards newcomers in many societies, but in the case of HK, it should be looked at from the specific context of colonialism and relations with the Mainland. Throughout colonial history, the HK identity has been established on the grounds of denial towards Mainland China. The attitude of Hongkongers towards "New Immigrants" is related to the politics of identity in HK.

This paper investigates how "New Immigrants" from Mainland China to HK are categorized as the 'Other' The complicated relationship of the status and identity between 'Hongkongers' and 'New Immigrants' shows the vulnerability of the distinction. The analyses on the discourses imposed on the New Immigrants and how they deviate from reality suggest that the HK identity is based on the politics of memory and oblivion. Immigrants are tamed and made into Hongkongers through various institutions and apparatuses. HK society is reproduced through this process, but at the same

time, the continuous inflow of the immigrants from Mainland China violates the boundary of the distinctive Hongkonger identity. The reproduction process cannot be seamless with the existence of immigrants.